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November 15 2024 Vol. 938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연합의 물결 일으키다

"회복" 주제로, 11월 10일~12일 아름다운교회 기도원서 32개 교회 60여 명 참가



기독일보가 주최하고 원하트 미니스트리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이 주관한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11월 10일(주일)-12일(화)까지 빅베어에 있는 아름다운교회 기도원에서 개최됐다. ⓒ기독일보

지난 11월 10일(주일) 오후 5시 '제3회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빅베어에 있는 아름다운교회 기도원에서 막을 올렸다.

11월 10일(주일)부터 12일(화)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기독일보가 주최하고,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목회자와 그들의 가정을 초청해, 소명을 돌아보게 하고, 침엽수와 단풍으로 둘러싸인, 숲에서 안식과 쉼을 얻고, 예배와 찬양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며,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특히, 올해 위 브릿지 컨퍼런스에서는 위 브릿지 교회로 선정되어 정기 후원을 받아 온 교회 목회자들이 위 브릿지 사역을 통한 열매와 변화,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이 사역에 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는 "어떤 한 교회가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 마음을 써 주시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 금액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닌다"며, "이 사랑을 생각하면 개척교회 목사로서 외롭지 않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나누었고, 김영일 목사(더섬기는교회)는 위 브릿지 사역을 통해 예배 처소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었으며, 남미 선교사님들을 미국에 초청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다며, "많은 것을 풍요롭게 했다, 후원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게 큰 힘이 되었다"고 나누었다.

신현우 목사(생명과 사랑의교회)는, 2020년 2월에 청빙 받았는데 한 달 만에 팬데믹이 왔고, 중간에 그를 청빙한 장로들과 중직자들이 다 나가버렸다며 그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위 브릿지였다고 간증했다.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계속

네이퍼빌 한인교회, UMC 탈퇴 위해 약 140만 지불 합의

교회 재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교단(UMC)과 소송을 벌여 온 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탈퇴를 위해 140만 달러(약 19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최근 교단 탈퇴와 관련해 UMC 북부일리노이연회와 합의했다"며 UM뉴스를 인용 보도했다. 해당 교회는 모든 교회 재산과 자산을 교단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UMC 신탁 조항에 따라 142만 9,457달러(약 20억 원)를 지불하고 공식적인 탈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경.

강혜진 기자 ➔ 3면에서 계속

트럼프가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은 이유

기독교 가치 수호 트렌스젠더 광기 저지 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렌스젠더주의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는 창조 질서 등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혀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복음주의자의 70%가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내건 기독교 관련 공약들이다.

◆기독교 가치 수호

트럼프는 지난 2024년 2월 전미종교방송 국제 기독교 미디어 컨벤션에서의 연설을 통해 "당선 후 반기독교적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TF팀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과 미국인들이 박해를 받고, 정부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종교에 대해 무기화되고 있다"며 "미국 내 기독교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및 박해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공 광장에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하며, 언론이나 좌파 단체가 우리를 침묵시키고 차별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동성애

트럼프는 10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콩코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후 신앙 지도자 회의'에서 "취임 첫날 비판적 인종 이론이나 트랜스젠더 광기, 부절적한 인종·성적·정치적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연방 자금을 삭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주안에교회 제 2대 담임목사 취임예배


이 크리스 목사

창립 11주년을 맞은 주안에교회는 제 2대 담임목사로
이 크리스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안에교회 제2대 담임목사 이 크리스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11월 22일 (금) 오후 7:30
장소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reet, Northridge, CA 91326
문의 818-363-5887

주안에교회 당회 드림

주안에교회 ICCC



목회부, 교육부, EM 공동체를 함께 섬기실 풀타임/파트타임 사역자를 모십니다.
InChrist Community Church is seeking dedicated part-time or full-time pastors for the Korean Ministry, Education Dept., and English Ministry and a part-time staff graphic designer.

NOTE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파일 혹은 링크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전형 후 개별 연락 드립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후 폐기되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 교육부, EM 공동체 목사 혹은 전도사(풀타임/파트타임) & 디자인 간사(파트타임)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졸업증명서, 추천서 2부,
안수 증명서 및 설교영상(목사/전도사), 포트폴리오(디자인)
접수: iccc.office3@gmail.com
마감: 2024년 11월 30일

"교회, 니체의 초인을 추구하나, 주님의 양식은..."

위 브릿지, 곽부환 목사 개회예배 설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양식으로 삼으셔"

위 브릿지 컨퍼런스 첫 날 일정은 오후 5시 개회예배로 그 시작을 알렸다. 개회예배 설교자로 선 곽부환 목사(한마음제자교회 담임)는 "내 양식은"(누가복음 9:16-17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양식이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듯(요한복음4:32-34) 목회자의 양식은 '십자가의 자리', '나를 비우고 나를 태우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라 설교해 깨달음을 안겼다.



곽부환 목사(한마음 제자교회)가 위 브릿지 컨퍼런스 개회예배에서 "내 양식은"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기독일보

"니체의 생애를 보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이 죽어 버린다. 목회자가 되길 바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초인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목회자들이 무엇을 갈구하는가? 목회자들은 종종 '성령의 능력','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갈구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사이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

"제자들은 상황을 분석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2백 데나이온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여러분 사역의 현장이다. 마음은 뜨거운데 걸림돌이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줄 모른다.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이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다. 저는 목회를 오래해 왔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겪어 봤다. 유치부부터 모든 연령층을 겪어 봤다. 여러 사람을 목회하고 이민목회도 20년 이상 해왔다. 여러분은 지금도 초인을 찾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매일 이곳은 광야이고, 2백 데나리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은 현실이다. 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기서 늘 우리는 한계를 느낀다."

그는 초점을 예수님의 양식으로 옮겨,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요 4:32)것이었다. 양식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예수님 최고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최고의 요리는 뭐냐? 그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오래도록 가장 강력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힘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의 양식이었다. 죽음을 양식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식을 잡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 주가 되셨다."

그는,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참된 양식과 음료가 무엇인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우리 양식이다. 내가 죽는 자리, 내가 사라지는 자리, 내가 다 태워져 버린 그런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먹으라는 그 양식을 먹는 그것이 내가 진짜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나를 살려주는 양식이다"라며 도전을 줬다.

주디 한 기자

➔1면 기사 〈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에 이어서

내년이면 개척한 지 10년 차가 된다는 정찬군 목사(예심교회)는, "개척 후 2년 반이 되던 때 교인 수가 50명이 되려했다. 그때 한 가정이 들어와 50명이 넘어갈 건데, 펜데믹이 오고 절반이 빠져 나갔다. 목회를 그만두려 할 때, 위 브릿지를 만나게 되었다. 빨리 회복되어 돕는 교회가 되고 싶었고, 위 브릿지 후원금으로 선교지 두 곳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간증했다.



이석기 목사(성일교회)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



신현우 목사(생명과 사랑의교회)



강은덕 목사(늘새론교회)

오상규 목사(남가주 예수사랑교회)는 장애우 10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경험을 나누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장 위기의 때 그 수간을 버티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위브릿지를 통한 도움이었다"라고 했고, 양국민 목사(함께하는 주님의 교회)는 위 브릿지를 통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멘토 목사님을 만난 것을 꼽으며, "목사님께서 저를 후원해 주지 않는 게 어쩌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끔 했다. 이전의 저와의 관계 속에서, 호의를 베추시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한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먼저 다가와 주셨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주셔서 본인의 지혜를 나눠주셨다. 혼자가 아니라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좋은소식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이순애 목사(좋은소식교회)는 그동안 일과 목회를 병행해서 못 왔는데, 2025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고, 디즈니랜드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강은덕 목사(늘새론교회)는 "개척 12년 차, 운전강사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로 초청한다"고 있다며, 청년 교회 포멧, EM 교회 포멧 등을 시도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나눴다.

액츠 글로벌 처치(Acts Global Church) 에서 일본어 목회를 하는 박은성 목사는 "교회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100명이 되었다. 그런데 일 년도 안 되어 다 사라지고 7명만 남았다. 목회를 내려 놓고 싶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 사임을 준비하며 한 달간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코어 멤버를 만나 교회를 사임하겠다는 말을 꺼내려는데, 누군가 제 옆구리를 치는 것 같았고, 교회를 계속 섬기겠다는 말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왔다"며, "연합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때 위 브릿지에 초대를 받았다. 지역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위 브릿지를 통해 생겼다. 개척해 보신 목사님들과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자주 뵙지는 못하고, 1년에 한 번 뵙는 목사님들인데도, 형님들을 뵙는 것 같다"라고 은혜를 전했고, 강문수 목사는 "이번 모임을 통해 기독일보의 이인규 목사님이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년에 위 브릿지 행사에 우리 교회가 작은 힘을 좀 보내고 싶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용근 목사(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는 "올 때 마다 힘을 받는다. 주님을 뵙는 듯 하고, 형님을 뵙는 듯 하다. 함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며, 교단 분리 문제로 교회들이 갈라져 나가면서 결연되어 있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위 브릿지를 통해 채워졌다.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가, 그것도 신문사의 위 브릿지 사역을 통해 저희 교회를 돕는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었다. 그 돈이 채워져 찬양 사역자와 지휘자를 모실 수 있었다"라고 했고, 장현석 목사(버몬한인교회)는 본교회를 후원하는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위 브릿지 사역이 재정적 도움뿐 아니라 영적인 교감을 재공해 줬다"고 말했다.



"차원성을 이해하면 사역 전체가 달라진다!"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첫째 날 저녁 집회
고승희 목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11월 10일(주일)-12일(화)까지 빅베어 아름다운교회 기도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곽부환 목사의 "내 양식은"(누가복음 9:16-17)라는 제목의 개회예배 설교로 시작을 알렸다. 저녁 식사 후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고승희 목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19절)라는 제목으로, '차원'에 대한 이해, 정필도 목사의 전략, 브루클린 태버내클 교회의 설교를 통해 목회의 전략에 대해 나누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온 지 31년이 됐다. 제가 처음 교회 올 때 교인이 9명이었다. 저희 동네 식당에 가면 불쌍한 교회 목사로 왔다고, 밥 값을 안 받았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장편소설이 아니라 대하드라마이다. 내적 치유 사역을 많이 했다."

차원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니, 성경 전체가 다르게 보여

"저는 차원을 이해하고 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가 다르게 보였다. 성경 전체가 다르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 전체가 달라진다. 차원에 대해 처음 생각한 것은 필 파샬(Phil Parshall) 교수님의 특강 때문이었다. 반은 크리스천 팀, 반은 이슬람팀 토론을 하게 했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시비가 걸리는 것이 무엇일까? 삼위일체론. 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냐며, 다신교라는 오해를 받는다."

차원에는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있다

그는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한 가운데 에베소서 5:30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에서 찾았다고 했다.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1+1=2로,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 그런데 1x1=1. 더하기로는 하나가 안 되는데 곱하기로는 하나가 된다. 서로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1차원은 선, 2차원 면적, 3차원 공간이고, 4차원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차원에는 재미있는 게 있다. 자유도(Degree of Freedom)라는 게 있다. 1차원은 선이기 때문에 앞뒤 이동만 가능하고 옆으로, 상하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것을 컨스트레인(Constraints)이라고 한다. 2차원 앞뒤 좌우, 3차원은 앞뒤좌우상하로 이동할 수 있지만 시간은 움직일 수 없다. 4차원은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간이 더이상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몸은 3차원, 마음은 4차원

"우리 몸은 시간을 이동하지 못하나, 우리 마음은 10살 때로 돌아갈 수도, 80대로 갈 수 있다. 우리 생각은 시간에 안 묶인다. 즉, 4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차원에는 이동이 가능하다.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변형되는데 교회 용어로는 부활이라고 한다. 낮은 차원의 생명체가 낮은 차원의 육체를 버리고,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반대는, 높은 차원에 있던 존재가 낮은 차원의 옷을 입고 내려오는 것, 즉 성육신이다.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상상할 수 없다. 호랑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 3차원과 2차원의 차이도 그 정도이다. 어마 어마한 희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영적인 세계가 개입하면 자연법칙이 무너진다. 영적인 세계가 개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쳐들어오면 가나에서 기도하는데 가버나움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다.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한국에서 우리 어머님이 은혜 받을 수 있다.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첫째,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이끌었다. ©기독일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쳐 들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40년이 걸렸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삶에 개입하면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쳐들어오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풍랑을 밟고 가는 자가 있다. 저 풍랑이 나를 칠 거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심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것이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사람은 물 위에 못 걸어', 그 생각에 갇혀 있었다. 그 생각이 감옥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를 절대 창조할 수 없다.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못 만들어 낸다. 모든 역사는 긍정에서 나왔다.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지 못했다."

전 대원을 복음화한 전략

"정필도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제일 은혜 받을 사람만 생각하고 하라. 그러면 교회가 다 좋아진다. 지금 수영로 교회를 지을 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부대 앞에서 두 손들고 '전 부대가 복음화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 아내를 친정에 보내고, 본인은 장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커피와 도너츠를 들고 초소를 찾아다니며 병사들을 위해 기도해줘서 부대에 소문이 났다. 결국 부대 전체가 복음화되었다."

단순 반복 집중의 전략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목사님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하는데 40분 동안 그 표현이 120번이 넘게 나왔다. 대단한 설교라고 생각한다. 단순 집중 반복이다. 말씀이 마음이 새겨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4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3차원이 바뀐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 큰나무교회(김귀보 목사),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한길교회(고광선 목사), 한마음제자교회(곽부환 목사),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LA씨티교회(써니 김 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오명찬 목사), 주은혜교회(최호년 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 나눔과섬김의 교회(엘리야 김 목사), 하톤교회(진건호 목사), 위 브릿지 교회 및 BTS 솔라 design, 센터 메디컬 그룹, Trinity MS,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 혜민병원에서 후원했다.

위 브릿지 사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남가주 지역의 큰 교회들과 결연을 진행해 매월 500불씩 3년간 정기후원을 받도록 하는 것과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목회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남가주에 새로운 연합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기독일보

➔ 1면 기사 〈美 트럼프...〉에 이어서

◆낙태 이슈

트럼프 당선인은 사람들이 낙태를 원할 경우 주에서 투표와 법률로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내용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낙태 문제는 (각 주) 국민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또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생명단체 라이브액션의 릴라 로즈 대표는 트럼프 캠프가 낙태약과 '(생명권 옹호자들이 비판하는) 시험관 수정 불임 치료'를 지지한 것, 친생명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 등을 비판하기도 했으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도움을 준 대법관 3명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낙태 문제 이슈에 관해 논의했다"며,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임신 9개월 낙태를 합법화하는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뒤집고 그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마약 판매 시 사형, 아동 성범죄자 사형,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 1면 기사 〈네이퍼빌 한인교회...〉에 이어서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평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K.P. 정은 "하나님은 옳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교회를 위해, 이탈 그룹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 간의 화해를 위해 계속 기도한다. 또 선교와 사역에 집중하고, 사역에 건물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북부일리노이의 댄 슈베린 주교는 성명을 내고 "UMC에 충실하고, 새 이름인 '우리 연합감리교회'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소송이 마무리됐으므로 네이퍼빌 지역을 제자화하는 사역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김귀보 목사의 “말씀이 들리는 내러티브 설교”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내러티브로 성경보기" 특강

제 3회 위브리지 컨퍼런스가 10일 오후 5시부터 12일 오후 12시까지 빅베어레이크 근처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 기도원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RE-STORE” Flesh and Soul”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 재충전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 중에 달라스에서 온 김귀보 목사(큰나무교회)가 “내러티브로 성경보기”(설교/성경공부)에 대해 강의를 했다.



제3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의 강사로 선 김귀보 목사는 “내러티브로 성경보기”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둘째 날 오전 특강을 인도했다.

내러티브 설교가 필요한 이유

강의의 핵심은 설교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자는 것이었으며, 특히 내러티브 설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강의는 설교가 단순히 성경의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나?”

강의가 시작되자 김 목사는 설교자들끼리 흔히 묻는 질문을 던졌다.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나요?”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대답을 하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설교는 개인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한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는 또한 코로나 이후 변화된 교회 환경에 대해 다뤘다. 특히 작은 교회와 큰 교회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성도들이 편리한 시설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작은 교회를 찾지 않는 현실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목사는 과거 작은 교회에서 설교 CD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설교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고, 여전히 설교가 목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설교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을 전달하는 것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종종 자기 이야기나 흥미를 끌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만, 성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한 부흥회에서, 특히 MZ세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해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러티브 설교의 힘

강의의 핵심은 내러티브 설교의 중요성이었다.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을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 속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재구성하여 성도들이 그 장면과 상황을 머릿 속에 그리도록 돕는 방식이다. 그는 레위기 설교를 시작한 경험을 나누며, 20년 동안 미뤄왔던 레위기 설교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진행했을 때 성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고 했다. 내러티브 설교가 성도들에게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설교 내용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고 했다.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의 이야기 속 장면과 상황을 더욱 강조한다. 예수님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예로 든다면,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아내고, 그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이지만, 내러티브 설교에서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지리적 특성, 강도의 위협,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쳤는지와 같은 배경을 함께 설명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성경 속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된다”

설교에서 장면 전환의 중요성

설교에서도 장면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흥미를 끌 수 있듯이, 설교에서도 장면 전환을 해야 한다. 성경 이야기를 단순히 설명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보다, 이야기 속 갈등이나 변화를 강조하여 성도들이 더욱 몰입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마스 맹 기자

제5차 CMF Kids Celebration 성료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11월 10일(주일)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OC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에서 어린이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차 CMF Kids Celebration을 개최했다.

어린이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김철민 장로의 개회 기도로 시작됐다. 에스더 포치 간사가 찬양을 인도했고 주강사인 탁영준 선교사(페루)가 “성경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 중에는 미니 콘서트, 게임, 바이블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짧은 아쉬움을 남기며 다음 해의 만남을 기약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였고, 김종규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CMF선교원은 40일 간의 체인 금식 기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모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봉사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도록 기도하며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김민선 기자

CMF 선교원: www.godfamily.com/
문의: (562)483-0191



제5차 CMF Kids Celebration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MF 선교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센터메디컬그룹

가을 맞이 조끼 무료나눔 행사



+ 모자와 조끼 같이 드려요

선착순 행사 | 조끼수량 소진시 조기 마감
만 65세 시니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South Bay
토렌스
20050 Vermont
11월 13일
마감

OC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점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11월 **15일** 금요일 오전10시

LA
엘에이 새생명비전교회
4226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11월 **22일** 금요일 오전10시

문의전화 —— 오전9:00 - 오후5:00
(888) 847-3098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사랑의교회, 'WEA 총회 유치' 사실상 확정 발표

11월 15일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 출범 예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위원장 맡아 주도할 듯
WEA 총회 위해 거창한 '개최국 조직위' 전례없어
개교회 차원에서는 회원 자격 없다는 점도 걸림돌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2025년 세계복음연맹(WEA) 총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는 최근 WEA 몇몇 인사들과의 물밑협상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10일 교계 언론사 기자들에게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소식을 알렸다. 출범 감사예배는 11월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드리며 설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전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WEA 서울총회는 오정현 목사가 조직위 위원장을 맡아 사랑의교회가 주도하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협조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WEA는 보통 6년 주기로 대륙별로 돌아가며 총회를 개최하는데, 최근 총회는 2008년 태국 파타야, 이후 11년 만인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모두 아시아에서 개최했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총회가 열리면, 전례 없이 아시아에서 3회 연속 총회가 열리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총회 개최 등을 위해 WEA 전 사무총장이자 현 글로벌 대사인 에프라임 텐데로 주교(필리핀)가 2023년 2월과 올해 1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토마스 슈마허 대주교(독일)가 2023년 9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만났으나 수락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고 한다.

그런데 슈마허 대주교가 2023년 9월, 텐데로 주교가 올해 3월과 5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각각 만나 총회 장소 제공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오 목사 측이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WEA가 WCC의 아류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WEA는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기관이고, 그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세계교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사랑의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에서는 WEA 일부 리더십이 보인 종교다원주의적 행보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예장 합동 정기총회에서는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것을 권고"한 정치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런데 사랑의교회가 WEA 총회를 유치하면, 합동 내에서 유보적 결론으로 겨우 봉합해 둔 WEA 논란에 다시금 도화선이 될 수 있다.

WEA 총회는 2025년 10월경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만약 이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열리는 예장 합동 정기총회에서 WEA 참여 금지를 결의할 경우 WEA와 한국교회에 전체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한기총이 WEA 총회를 유치했다가 금권선거 논란 등으로 분열이 장기화되자, WEA 측에서 포기 선언을 하고 총회 장소를 변경한 바 있다.

또한 WEA 회원이 아닌 개교회가 WEA 총회를 유치한다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 WEA는 한 국가당 1개의 복음주의적 연합기관만을 회원단체로 두고 있으며, 개교회나 개교단 차원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WEA에 가입했다. 그런데 한기총의 내홍으로 갈라져 나온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WEA의 복수 회원이 됐고, 지난 2022년 한교연 지도자들이 WEA 본부에 방문해 회원 자격을 공인받았다. 그리고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도 WEA의 협력회원으로 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한기총·한교연·한복협은 WEA 측과 총회 유치에 대해 공식 논의한 바가 일절 없으며, WEA의 일부 리더십과 사랑의교회 측의 논의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WEA가 이들을 배제하고 한국에서의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면 절차상 큰 문제이며, 추후 큰 논란과 반발까지 야기할 수도 있다.

WEA와 사랑의교회 간의 대화는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카이캄 고문)의 중재로 이뤄졌는데, 김 목사도 한기총·한교연·한복협과 이 사안을 전혀 공식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가 창립을 주도했고 현재 고문으로 있는 카이캄은 독립교회들의 연합회로, 보통 독립교회는 연합운동 참여에 비판적인데 그가 WEA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WEA 전 사무총장 에프라인 텐데로 주교, WEA 전 사무총장 토마스 슈마허 대주교,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 카이캄 고문 김상복 목사.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순서대로) 오정현 목사, 텐데로 주교, 김상복 목사 등이 올해 3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WEA 총회 유치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한 모습.

사랑의교회에서는 WEA와의 대화 창구 역할을 고성삼 부목사가 맡았는데, 고 목사는 과거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논란 당시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이로 인해 사랑의교회 당회는 고 목사에 대해 "사과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의했었다. 사랑의교회가 이번 총회 유치 논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이 같은 속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형교회가 세계 복음주의 기관의 회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WEA의 각 국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거창하게 조직위를 출범시키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서울총회를 수천 명 규모로 치를 것이라는 설도 나오는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로잔대회와는 달리 WEA의 총회는 회원단체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지난 2008년 파타야 총회와 2019년 자카르타 총회 모두 참석 대표 수가 500명 미만이었으며, 개최국에서 조직위를 구성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현재 WEA의 리더십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WEA의 최고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임기는 보통 5년이며 관례상 2회 연임한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사무총장에 취임했던 에프라임 텐데로 주교는 연임에 실패하면서 5년 만에 임기를 마쳤고, 그 후임인 토마스 슈마허 대주교는 2021년 취임해 본래 임기가 2026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이를 2년여 남기고 지난 3월 말 돌연 사임했다.

슈마허 대주교는 지난 3월 3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으나, WEA 내부에서는 그것이 사실 문책성 해임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가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WEA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과도한 종교다원주의적 행보를 보이며 복음주의권의 거센 반발을 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슈마허 대주교는 텐데로 주교와 함께 교황을 만나는 등 친가톨릭적인 태도를 견지했을 뿐 아니라, 동방정교회와 더 나아가 이슬람과도 교류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다가 세계 복음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WEA는 슈마허 대주교의 사무총장 사임 소식을 4월 1일 발표하며 후임을 6개월 내로 선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돌연 방침을 바꿔 국제이사회 굿윌 샤나 이사장이 사무총장직을 겸직한다고 발표해, 이는 정관에 위배되며 기형적 체제라는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WEA의 리더십이 아직 이런 과도기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이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총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조직위 출범 예배에도 굿윌 샤나 이사장은 개인적 사유로 불참하며, 프랭크 힌켈만 부의장 및 페이롱 린과 사무엘 창 부총무 등만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부총무는 토마스 슈마허 전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인물들이다.

재정난에 빠져 있는 WEA에 이번 총회 개최를 명목으로 한국교회의 재정 지원이 언제, 얼마나 이뤄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WEA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10월경은 오정현 목사의 목회 임기가 불과 1년 정도 남은 시점이다.

이대웅 기자



Loving Worship Healing Music Talk Concert

BELOVED











출연진

새롭게 하소서 MC
주영훈, 박요한, 송지은
—
러빙워십
Joseph Lee 목사
—
사랑과 평화 기타 &
싱어송 라이터 조범진

스페셜 밴드 & 게스트 싱어

총괄 프로듀서
Troy Choi

Ticket 문의

$30 | $40 | $50
—
213.357.1565
—
La Mirada Theatre
Box Office

lamiradatheatre.com

주소

La Mirada Theatre
14900 La Mirada Blvd

금 | FRIDAY
12.13 — 8PM

토 | SATURDAY
12.14 — 7PM

협력 교회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베델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충현선교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토
렌스 조은교회
LA동부사랑의교회LA
온누리교회

협력 단체
기독일보
KBS America
YTV America
Soon Movement Global

주최 & 주관
Loving Worship

사우스베이 11월 정기 예배 모임

지난 11월13일(수) 오전 8시 가디나장로교회(신태섭 목사)에서 김우준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은혜롭게 시작 되었다.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고 신용환 목사(주님세운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신태섭 목사가 설교 했다.

신 목사는 데살노니가 전서 2장6절-8절을 본문으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큰 은혜와 감명을 전했다 그의 설교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성애가 아니가요, 그리고 모성애가 강한 민족과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인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 목사는 "모성애의 모습을 일부 소개한다면 태아를 출산하고 소 대변을 기쁨으로 받아 처리하면서 그 태아를 키워서 성장 켜주는 아름다음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이요, 바로 이 아이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고 설교해서 참가한 목회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사우스베이 목사회(회장: 김우준 목사)에서는 11월 정기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친교 나누었다. @사우스베이 목사회 제공

이어서 합심 기도 순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차기 대통령과 미국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태섭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사우스베이 목사회 11월 정기 예배 모임을 마치고 가디나장로교회에서 참가한 회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베풀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셉 리 기자

제2회 주사랑나눔여성선교합창단 연주회 성료



제2회 주사랑 나눔 여성 선교 합창단 연주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사랑 나눔 여성 선교 합창단 제공

제2회 주사랑나눔여성선교합창단(단장: 강태광 목사) 연주회가 지난 2일(토) 오후 6시 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연주회의 첫 번째 출연은 주사랑 나눔 여성 선교회 합창단 영원한 노래(반주: 김현아), 은혜 알게 하소서(홍지열), 존귀한 주. 우리 왕(반주: 서은정) 등을 선보였다.

이어 OPC Youth Ensembledl 찬조 출연해 밤양갱(장기하)를 부르고 It is Well With My Soul(작곡 필립 폴 블리스),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작곡 제임스 맥그라나한, Arranger: Peace Lee) 등을 연주했다. 하나 콰이어(지휘 문혜원, 피아노 반주 김현아) 또한 찬조 출연해 주 너를 지키리, King of Kings-Don March 등의 곡을 선보였다.

주사랑 나눔 여성 선교 합창단은 월드쉐어USA와 함께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어린이들과 빈민국을 도우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단체이다. 김민선 기자

제7회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11월 10일 미주평안서 특별 출연 가야금 트리오

재미기독여성합창단(단장; 목경순) 제 7회 정기 연주회가10일(주일) 오후 4시30분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목경순 단장의 인사말과 강진웅 목사가 개회 기도를 하고 연주회 열렸다.

첫번 째 등단한 재여성합창단은 *참 좋으신 주님 *나 감사하며 살리라 *눈을 주님께 돌려 등을 불러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제7회 정기 연주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이어서 특별 순서로 *무지개 넘어(가야금: 이정화 첼로: 박수장 재즈; 피아노: 이선행 씨가 함께 공연을 하였고 이어서 재미여성합창단이 등단하여 *내 맘이 강물 *눈 *사랑은 아름다워 등을 부르고, 테너 솔로로 이율구씨가 *세상을 사는 지혜 *O Solo Mio를 불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재미기독여성합창단이 등단하여 *보리 밭 *꽃구름 속에 *funiculi Funicula 등을 부르고 이어서 특별 출연한 가야금 트리오가 *주의 은혜 *주 은혜가 나에게를 부른 후에 2대 단장인 장영순씨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강진웅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조셉 리 기자

제29회 남가주 장로 성가단 정기 연주회

11월 17일(주일) 오후 5시 파사데나 장로교회서

남가주 장로 성가단(Elders Choir of Southern California, 단장 한경환)는 11월 17일(주일) 오후 5시 파사데나 장로교회(Pasadena Presbyterian Church, 담임 최진혁 목사)에서 제29회 정기 연주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장로성가단과 함께 지휘자 장진영, 반주자 윤경미, 소프라노 이영주, 플루이스트 최혜성이 출연한다. **문의: 213-700-0053 (단장), elderschoir.com**

제 6회 Kindness Award' 시상식 개최

11월 13일(금), 세계 친절의 날(World Kindness Day)을 기념하여 오렌지카운티 제4지구 더그 캐피(Doug Chaffee) 수퍼바이저가 주최한 '제6회 Kindness Award'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OC 4지구에 속한 Anaheim, Fullerton, Buena Park 등 7개 도시의 수상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에나팍 지역에서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커피샵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시소 커뮤니티(Seesaw Communities)의 Sam Yoon 대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소 커뮤니티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게 커피 교육과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소 커뮤니티는 부에나팍과 월넛에 교육센터를, 그리고 부에나팍과 포모나에 Seesaw Beans and Coffee를 운영하며, 장애인 고용과 자립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Sam Yoon 대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셉 리 기자


부에나 팍에서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소 커뮤니티가 제6회 Kindness Award를 수상했다.



미얀마, 군사력 손실 증가에도 종교적 박해 거세져



시위대가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VOA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는 미얀마에서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박해가 군사 정권이 무장 저항군에게 영토와 통제권을 상실함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보고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군사 정권이 통제권을 잃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민족 무장 조직들이 영토를 공고히 하고 병행 정부 구조를 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의 고조는 종교적 자유나 신앙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와 통치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는 3월까지 국가 영토의 약 86%와 인구의 67%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와 종교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저항 세력들이 통제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행 정부 모델이 등장했으며 민주주의 지향의 국민통합정부(NUG)가 평화롭고 다민족적인 국가 재건을 위해 널리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일부 민족 소수자들은 NUG가 버마족 불교도 중심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NUG는 로힝야족 출신의 아웅 카우 모를 장관직에 임명하는 등 소수자 대표성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합법적 정부로서 국제 인정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USCIRF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민족-종교 소수자들을 겁주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카친 침례회 지도자인 클람 샘슨 목사를 테러, 불법 연루, 반정부 선동 등의 혐의로 6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했으나, 3,300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24시간 만에 재구속되었다가 7월에 다시 석방되었다고 밝혔다. USCIRF는 교단 구성원들은 샘슨 목사와 같은 지도자들의 구속이 군부가 카친 침례회와 카친 독립군(KIA)을 협박하고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으며 보고서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자들이 저지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은 수사되지 않는다. 2024년 3월 18일, 무장 괴한이 모가웅 타운십에서 카친 침례교 목사를 총으로 쏘았고, 4월 12일에는 두 명의 가면을 쓴 인물이 카친 주 모흔인 마을의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서 미사 도중 가톨릭 사제를 총으로 쏘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가 6월 19일 만달레이 지역에서 저항군 차량으로 오인하여 고위 불교 승려인 바단타 무닌다 비밤사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교회 건물과 불교 수도원 등 종교 시설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으며,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전국적으로 220개 이상의 교회 건물이 파괴되었고, 이 중 최대 100개 가톨릭 교회가 까야주에서 파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도 예배당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다. 8월 15일, SAC의 공습이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두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다. 5월 11일과 12일에는 진 주의 톤장 타운십에서 가톨릭과 침례교 교회를 포함한 가옥이 군부 공습으로 파괴되었다. 1월에는 사가잉 지역 예우 타운십에서 가톨릭 교회가 불탔고, 2월 5일에는 데모소 타운십의 한 마을 교회가 공습으로 손상되었다. 6월 8일에는 사가잉 지역의 불교 수도원이 공습을 당해 불교 승려 세 명을 포함한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인구의 87.9%는 불교도, 6.2%는 기독교도, 4.3%는 무슬림, 0.8%는 애니미즘 신앙, 0.5%는 힌두교도이다.

김진영 기자

"북아일랜드 학생들, 성적 지향보다 기독 신앙 밝히길 더 꺼려"

북아일랜드 스톰몬트에서 진행 중인 '관계성 및 성 교육'(Relationship and Sexuality Education, 이하 RSE)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 지향'보다 '기독교 신앙'을 밝히는 것을 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에 따르면, 다양한 교회와 개인을 대표하는 북아일랜드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 Northern Ireland)의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대표는 교육위원회에 "일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커밍아웃하는 것이 성소수자로 커밍아웃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스미스 대표의 발언은 북아일랜드 학교에서 RSE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대한 토론 도중 나온 것으로, 그는 "우리는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는 문화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다. 건강한 관계, 동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모와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킨 RSE 내 특정 이슈를 다뤘다.

스미스 대표는 보수당 미리엄 케이츠 의원이 영국과 웨일스의 RSE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목졸림이나 화학(약물) 섹스와 같이 위험하거나 불법일 수 있는 성행위 등, 연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는 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을 혼동하고 과학적으로 부정확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환경에서 기독교 관점이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며 "복음주의 기독교인과 많은 가톨릭 신자, 무슬림의 견해가 매우 구별되는 몇 가지 특정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낙태가 그렇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크리스 히튼-해리스(Chris Heaton-Harris) 전 장관이 2023년 의회에서 발의한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의 모든 중등학교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교육과 조기 임신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

닉 매디슨(Nick Mathison) 위원장이 "교사들이 어떤 종류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학생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스미스 대표는 "낙태, 성 정체성 구별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가르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이념적 압박을 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다.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세속적인 신성모독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유진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메디케어 가입 시 메디칼그룹은 **서울메디칼그룹**으로 선택해주세요

2024년 메디케어 보험가입 및 변경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의 시니어세요?
메디케어 HMO 부가혜택이 많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을 경우
보험사별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메디케어 가입 시 3가지 선택
보험회사, 메디칼그룹, 주치의 3가지를 선택하세요.
주치의가 서울메디칼그룹 소속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주치의의 의료보험 및 서울메디칼그룹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보험 에이전트나 서울메디칼그룹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가까운 전문 보험에이전트 또는 서울메디칼그룹 고객 센터 **866.760.3441**로 문의하세요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4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美 플로리다주, 주민투표서 '낙태권 합법화' 부결


ⓒNathan Dumlao/ Unsplash.com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5일(현지시간) 함께 진행된 '낙태권 합법화를 위한 주민투표' 결과, 플로리다주는 부결됐고 뉴욕주는 메릴랜드주는 가결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헌법에 낙태권을 명기하기 위해서는 주민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플로리다주는 57%에 그쳤다.

플로리다는 기존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022년에는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NYT는 "드샌티스 주지사가 낙태권 법제화를 무산시키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동원했고, 낙태권 관련 주민투표가 진행된 지역 가운데 공화당 우세 지역의 최대 찬성률은 59%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반면 뉴욕주의 경우, 낙태권 법제화가 가결됐다. AP통신은 "뉴욕주 유권자들이 성 정체성과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적이나 나이·장애·성 정체성·임신 등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의 수정안은 '낙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회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주에서 낙태권을 임신 이후 몇 주차까지 합법으로 봐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의료진이 태아가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메릴랜드주에서도 낙태권을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그 외에 애리조나·콜로라도·미주리·몬태나·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네바다 등 나머지 7개 주의 투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강혜진 기자

英 기독교인들 "트럼프 재집권 진보 가치에 대한 상징적 거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영국 기독교인 사이에서 트럼프 재집권이 영국과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문화증언센터(Centre for Cultural Witness) 소장인 그래함 톰린 주교는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언론 반응의 극명한 대조를 관찰했다.

톰린 주교는 "좌파 언론에게 미래는 어둡다"고 지적한 반면, "보수 매체는 낙관주의의 어조를 띠며 이 순간을 진보적 가치에 대한 상징적 거부로 기념했다"고 말했다. CT는 "톰린의 발언은 우리 시대의 갈등과 대조적인 열망을 요약하는 듯한 인물인 트럼프를 둘러싼 분열적인 미디어 묘사를 강조한다"라며 "이같은 날카로운 분열은 트럼프의 집권이 어떻게 엄청나게 다른 희망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톰린 주교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만큼 트럼프의 (집권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바라는 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절제된 견해를 제시했다.

'크리스천 인 미디어'(Christians in Media) 전 회장인 스티브 콕스는 다른 관점을 취하며, 트럼프의 승리를 노동 계층과 젊은 남성들의 환멸과 연결시켰다.

콕스 전 회장은 "이것은 정치적 올바름(PC),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반대 투표였으며, 소문자 'c'로 시작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의 회복에 대한 투표였다"면서 "집을 살 수 없고, 임대료를 내기 힘들고, 식료품값이 점점 더 비싸지는 젊은이들... 대학에서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여성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뒤처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콕스 전 회장은 이 인구통계학적 집단이 트럼프에게서 투사(champion)를 찾았다고 관찰했다. 트럼프는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성경의 예후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잔혹하게 파괴한 지도자로 지지를 받았다. 예후에 대한 언급은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를 인식된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파괴자로 보는 방식을 보여준다. 콕스는 "따라서 트럼프는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사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실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콕스는 그러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콕스의 견해는 트럼프의 특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리더십의 공격적인 톤을 걱정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긴장감을 포착한다. 콕스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힘과 연민의 균형을 필요로 하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이러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테오스(Theos) 디렉터인 차인 맥도날드는 트럼프 재선 이후 안도감을 전하며 더 개인적인 반응을 공유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결과가 마침내 일어났지만, 가장 큰 감정은 "긴장과 불안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 성공회 교회 "교인 4만 여명 감소… 주일예배 출석자는 증가"



지난 9월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의 세인트 존 대성당에서 열린 예배. ⓒYouTube/St. John's Cathedral

미국 성공회 교회(Episcopal Church)는 지난해 교인 수가 4만여명 감소한 반면,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는 증가했다.

이 교단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약 154만7천 명의 교인과 6천754개의 교회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2년 교단이 보고한 158만4천 명의 교인 수와 교회 수(6천789개)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다. 이는 2010년 교단이 보고한 교인 수가 196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격히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약 50만 명 더 많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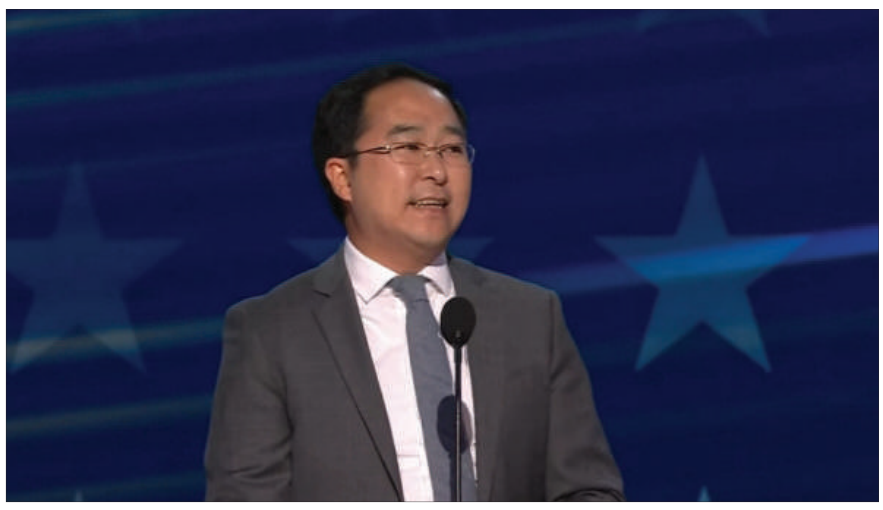
그러나 2년 연속으로 교단의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가 증가하여 2023년에는 평균 참석자 수가 41만1천명에 달했고, 2022년에는 37만3천명, 2021년에는 31만2천명이었다.

2023년 발표된 교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교인 수 증가는 봉쇄와 공중보건 문제로 인해 예배 참석률이 급락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여기에 보고된 (주일 평균 참석자)는 대면예배 참석자만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성공회 교회 중 4분의 3이 2023년 어느 시점에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예배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교인 중 3분의 2가 온라인 참여자로 추정되지만, 사람을 세거나, 연결된 기기를 세거나, 다른 지표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공식을 사용하는 등 측정할 표준화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온라인 참석자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예배 참석자 수는 2014년 보고된 60만 명과 2019년 보고된 54만 7천 명보다 여전히 훨씬 낮았다. 2023년 수치는 또한 성공회 교회의 3분의 1(32.9%)이 평균 주일예배 참석자가 25명 이하인 반면, 26.8%는 26~50명, 약 3분의 1(32.1%)은 51~150명, 8.3%는 평균 참석자가 15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성공회는 점점 더 진보적인 신학적 방향을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교인 수와 평균 예배 참석자가 상당히 감소했다. 앞서 지난 2003년 이 교단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최초의 주교를 성임했을 때,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많은 교회와 몇몇 교구가 항의의 표시로 탈퇴를 결정했다.

이미경 기자

美상원의 첫 한국계 당선자 앤디 김 의원 "정치, 오만했다"



앤디 김(뉴저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21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현지 영상 캡처

지난 5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로는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민주당 의원(42)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20년 대선 직후 유권자와 나눈 대화를 다시 들여다보며 당시 많은 의견들이 여전히 오늘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 속에서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다른 인물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의 정책과 성격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치적 혐오감이 이를 압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트럼프는 기성 정치와 다른 모습으로 인식되며 현 체제에 도전하는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며 정치와 거버넌스에 대한 깊은 불신이 트럼프의 지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이 지금 당장 유권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겸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에서 오만이 너무 만연해 있다"며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가진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로로 나아갈 것"이라며, 선거 당일 밤에 강조했던 '민주주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여전히 미국의 치유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피력했다.

또한 자신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내가 개혁과 부패 척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은 점도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준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홍은혜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 우수한 성적 거둬

제32회 BruinMUN 대회 총 5개 상 수상



11월 9일-10일 이틀간 UCLA 모의유엔(BruinMUN)대회에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프로그램 학생들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KACLA.ORG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학생들이 지난 11월 9일과 10일 이틀간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32회 BruinMUN 대회에 참가하여 총 5개의 상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이번 UCLA 모의유엔대회는 2,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KAC MUN 학생들은 총 9개의 위원회에 배정되어 실제 외교관처럼 국제사회 현안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과 경쟁을 펼쳤다.

이 중 '유엔평화구축위원회(UNPBC)'에 참가한 유진 권(Eugene Kwon) 학생이 장려상, 모니카 이(Monica Lee) 학생이 리서치상을 각각 수상했고, '위기관리위원회'의 제이미 임(Jamie Lim) 학생, '유엔평화구축위원회(UNPBC)'의 소피아 김(Sophia Kim) 학생, '유엔과학기술개발위원회(UNCSTD)'의 켈리 한(Kelly Han) 학생이 격려상을 수상하였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어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더욱 잘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회 웹 사이트: www.kacla.org
전화: 213.365.5999 **주소:** 3727 W. 6th Street, Suite 305 LA, CA 90020

미주성시화운동본부 11월 정기 모임

11월 6일(수) 오전 10시 사역 보고 및 새 안건 논의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 송정명 목사)가 지난 6일(수) 오전 10시 성시화운동본부 회의실에서 11월 정기 모임 갖고 친교를 나누었다.

이날 모임은 최순복 권사가 대표로 개회 기도를 하고, 송 목사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 되면서 * 전 회의록 낭독 *제9회 설교 페스벌 보고 *시니어 교육(PLI) 세미나 협조 *엑스폴로 EXPLO 50 기념행사 협조 *하와이 성시화 운동본부 협조 *박인호 사무국장 사임 등에 관한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진 새로운 안건 순서에서 * 신임 사무국장: 이철주 목사 *한국대구 성시화대회 참석 건 *한국 동성애 운동 반대 건 *2024년 Higher Calling 지원 건 *운영 위원 추대: 김창호 목사, 윤종대 목사 *송년 모임 * 2025년 총회 소집 건 *미주 총신대학교 LA 사무실 대여 건 *홈페지 건 *2025년도 성시화 표어 선정 등 등을 협의한 후에 참가자들의 합심 기도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조셉 리 기자



미주 성시화운동본부 11월 정기 모임 후 단체 사진. @미주 성시화운동본부 제공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5주년 기념 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임성진 총장) 개교 35주년 기념 음악회가 "소리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11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세 파트로 이루어지며,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춘희(La Traviata)"의 서주와 아리아, 듀엣, 모짜르트의 피아노 협주곡(No. 23)과 모텟(Exultate Jubilate)이 첫 무대를 장식한다.

두번째 무대에서는 월드미션대학교 실용음악교수들이 주축이 된 재즈 그룹인 "Jeff Trio"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예정이다.

세번째 무대는 세 명의 테너들이 오페라 아리아, 칸초네를 통해 소리의 향연을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이다. 김민선 기자



제28회 학생연주회.

둘로스선교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둘로스선교교회 이병호 담임목사의 취임예배가 오는 11월 17일(주일) 오후 4시 개최된다.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이병호 목사는 서울신학대 및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주사 신학대 석사와 박사를 졸업했다. 대전목양교회, 백운교회, 미주한빛성결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둘로스 선교교회는 2003년 황의정 목사 부부(황성복 사모))를 비롯해 최효식 장로 부부(최종순 권사), 신육암 집사 부부 (신화자 집사) 등 총 11명이 개척했다. 교회는 한인타운 샤토 길과 6가에 위치한다.

둘로스 선교교회 주소: 3119 W. 6th St. LA CA 90020
문의: (213)703-2529(조동환 장로)



이병호 목사.

김인수 칼럼

노벨 화학상을 받은 한국인



김 인 수 목사
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총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12)

2024년 노벨문학상은 한국인 여성 작가 한강 씨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평화상이 유일했는데, 이제 문학상을 받으므로 두 사람이 상을 받았네요.

그런데 어떤 분이 쓴 글 가운데 지금까지 필자가,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알지 못했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의 두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의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987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사람은 과학자 찰스 피터슨인데 그는 한국인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 했습니다. 피터슨 씨는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1904년 10월 부산에서 출생했는데 그의 부친은 외국인 경영 금광에서 일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이 속지주의(屬地主義) 즉 그 나라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그 나라 시민이 되는 법이 있으면 피터슨 씨는 자연히 한국 시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속인주의(屬人主義)로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여서 자연히 피터슨 씨는 한국인이 될 수 없고, 부모의 국적에 따라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이 상을 시작한 알프레드 노벨은 수상자의 국적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상을 주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피터슨 씨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상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노벨위원회 명부에도 한국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으로 노벨상을 받은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이나 한강 씨의 문학상보다 먼저 한국 사람으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세 명입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노벨상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닥터 지바고〉를 쓴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퇴르나크는 195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지명되었지만, 러시아 혁명에 대한 서술과 당시 사회상을 담은 내용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소련이 압박을 가하여 결국 노벨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프랑스 작가 장 폴 사르트르는 197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노벨상이 지나치게 서양 편중이며 문학의 제도권 편입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수상을 거절했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의 작가며 언론인인 카를 폰 오시에츠키도 1936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지만, 독일의 히틀러가 압력을 가해 수상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하는 상은 하늘에서 받을 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느냐에 따라 주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유명한 상은 받지 못했어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상을 하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실 상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샬롬.

구봉주 칼럼

짜증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20대 때, 짜증이 많았습니다. 물론, 친구들에게 짜증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못마땅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에게는 짜증을 잘 냈던 것 같습니다. 짜증이 많다는 것은 곧 불평 불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싫은 일들, 부정적인 일들이 못마땅하여 불평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짜증이 많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가족들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 가운데, 불만이 생기면, 가까운 부교역자들에게 심정을 토로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마저도 결국 웃어넘기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왜 젊었을 때는 짜증이 많고, 지금은 그 짜증을 다른 이에게 푸는 습관이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제 마음의 그릇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져, 마음이 따뜻해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차분해진 것입니다.

짜증이 많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기질적인 요인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면, 부정적인 상황에 반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급히 처리하려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도 기질적인 요인인데, 마음이 소심하여서,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짜증을 다른 모습으로 표출합니다. 말을 아예 하지 않는다 거나 잠시 숨어 있다 거나, 날카로운 몇 마디 말을 던집니다.

세번째 이유는 경험적인 요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과거에 겪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심각해지지도 않았는데,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상이 구겨지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으로 사람과 상황을 품는, 즉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까다로운 사람, 짜증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짜증이 성격 탓, 상황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짜증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짜증을 잘 내면, 가족이 결코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짜증 섞인 말을 어린 자녀들 앞에서 자주하면, 자녀들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소심해집니다. 담대함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자비롭고, 여유롭고, 관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자동차 사고를 내도 "보험비가 얼만데"라며, 짜증내서는 해서는 안됩니다. "괜찮니, 어디 아픈데 없니? 큰 사고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녀가 비싼 물건을 샀다고 낭비했다며 짜증내서도 안 됩니다. "아빠, 엄마가 사주려고 했는데, 네가 돈 모아서 사버렸구나 대견하구나 다음에 아빠가 더 좋은 사줄 게"라고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짜증이 아니라,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짜증은 그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자기기분을 푸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현자가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제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물잔에 소금을 가득 부어 마셔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물은 몹시 짰고,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너무 짜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자는 다시 제자를 불러, 호수에 데리고 가더니, 호수에 소금을 한가득 붓고, 제자에게 호수 물을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그냥 물 맛인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세상에 소금 같이 짠, 답답한 일들이 많단다 그러나, 그 일을 담는 네 마음이 그릇이 크면, 짜게 느껴지지 않는단다 네 마음의 그릇을 키우거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 심령, 영혼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심령이 변화되어, 사람과 상황을 잘 포용하고 이해할 능력이 생기나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마음 속, 기질과 성격은 타고 나는 것이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의 크기는 제한적일지라도 담는 용량이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용량이 커졌다는 것은 곧 그릇이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제한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그릇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주시거나 제거해 주셔서, 다른 좋은 생각을 담을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짜증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 좋은 것만 담는 그릇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의 마음의 용량이 커지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라며,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설] 내년 WEA 서울총회, 명분도 실익도 없다

2025년 WE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교계에선 이번 WEA 서울총회 개최가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WEA 서울총회를 준비해 온 측은 오는 15일 오전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서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감사예배를 시작으로 총회 준비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직위 출범 감사예배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뒤 WEA 본부 지도부의 서울총회 배경 설명, 조직위의 경과보고와 기자간담회 및 오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WEA 의장 및 지도부는 작년부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WEA 서울총회 유치를 위한 논의를 해 왔고 올 5월에는 대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의 복음주의 단체와 선교단체, 교회, 해외 개혁주의 단체,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기총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리와 명예에 욕심을 내는 일부 목사가 WEA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획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조직위원회 구성을 즉각 중단하고, 출범 및 WEA 총회 개최 계획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이 WEA 서울총회 개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건 WEA가 최근 종교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행보로 인내 국내 여러 교단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WEA가 이를 해명하거나 뚜렷한 입장 표명도 없이 특정 교회와 손잡고 물량주의로 총회를 치르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WEA 사무총장이자 신학위원장 쉬르마허가 WEA가 추구해온 복음주의적 노선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계속해온 데서 비롯됐다. 그는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을 알현하는 등 세계복음주의 교회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동을 일삼아 전 세계 복음주의권 교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식 밖의 이탈 행동이 문제가 돼 지난 3월 사임했지만 이로 인해 국내 교계에선 WEA와 WCC가 차이가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게 사실이다.

그래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WEA 몇몇 인사들이 서울에서 총회를 열겠다며 지난해부터 서울의 한 대형교회와 은밀하게 추진한 배경이나 의도를 순수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를 추진해 온 WEA 내부 세력은 한국교회의 재력을 믿고, 이에 맞장구친 교회는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유치라는 성과와 명예욕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기총이 제동을 걸고 나선 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WEA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WEA는 WCC가 NCCK를 비롯해 예장통합, 기감 등 교단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 국가 한 단체만을 회원으로 인정해 한국에선 한기총이 WEA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금권선거 문제로 한국교회연합과 갈라지고 또 오랫동안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는 등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WEA가 종교 다원주의적 경향이 굳어지면서 예장합동 등 보수교단 등에서까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자 관계를 중단한 바 있다.

WEA 서울총회를 반대하는 곳이 한기총 하나만은 아니다. 광신대는 지난 11일 개교7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합동교단이 WEA와 교류할 수 없는 이유"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 복음주의 신학을 가장 성경적 신학으로 믿는 합동과 모양만 개혁주의 신학, 보수 복음주의 신학으로 포장하고 있는 WEA와의 교류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WEA의 신앙고백에 나타난 신학 정체성과 WEA 최근 행보를 들어 "특히 친 가톨릭, 친 이슬람, 친 젠더 관점 등 일부 행보로 드러난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WEA 부총무 사무엘 창이 최근 무슬림 장로협의회를 방문해 종교간 대화와 상호 존중 및 협력을 약속하는 등 친 이슬람적 행보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미 드러난 사실과 배경으로 미루어볼 때 WEA 총회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건 현실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회원이 아닌 개교회가 총회를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WEA는 또 무슨 근거로 서울 총회 개최를 특정 교회에 맡긴 것인지 어느 누구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WE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면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교단들이 환영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환영은커녕 도리어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WEA 총회 호스트 자격이 없는 교회와 이 교회에 끈질기게 구애를 보내온 WEA 내부 인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문제는 이들의 행동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다면 과거 WCC 부산 총회시 벌어졌던 강력한 저항 이상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는 WEA의 위상에 커다란 손상과 함께 세계 복음주의 교회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앞날과 나아가 세계 복음주의권의 결속을 생각할 때 내년에 서울에서 WEA 총회를 개최하는 건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본다. 더 늦기 전에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게 옳다.

백종근 칼럼

'하위렴 선교사 조선 선교행전' (8)

백종근 목사의 저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는 1896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지역의 유무형의 선교 인프라를 깔아 호남선교의 토대를 마련한 하위렴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담은 책이다. 그 내용을 수회에 나누어 본지에 싣는다.

그 당시 전주 4 대문 밖에 서는 장 가운데 남문 장과 서문 장은 대시大市라 불렀고, 북문 장과 동문 장은 간시間市라 했다. 특히 전주 남문 장은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장시場市였는데, 지금과는 달리 싸전다리 동편에 있는 천변에서 열렸으며 서문 장은 완산 다리 북쪽 너머까지가 장터였다.

4 대문 주변의 장들은 날짜를 달리하며 남문 장은 2일, 북문 장은 4일, 서문 장은 7일, 동문 장은 9일에 섰다고 하니까 성곽 주변의 장들은 거의 하루건너 장이 서고 있었고, 거기에다 전주 외곽의 소양장, 봉동장, 삼례장 등 7개 정도의 장터까지 포함하면 전주 주변에는 거의 매일같이 장이 열리는 셈이었다.

지역마다 전통 장이 정기적으로 선다는 것을 알게 된 하위렴은 사람이 모이는 장터를 순회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선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장이 서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하위렴은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장터 선교의 개척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당시 전주교회를 방문해 선교상황을 살펴보았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는 '그리스도 신문'에 전주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전주교회가 아직 흥성치는 못했으나 차차 날로 흥왕할 모양은 이 아래 몇 가지로 알 것이다. 제일 깨달을 것은 예수의 도를 사나이만 할 것이 아니고 남녀가 다 믿어야 할 줄 알고, 주일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마다 집안 식구가 다 함께 다니기가 어려움으로, 차례로 다니는 것과 아이들도 데리고 다님이요, 그중에 한 형제의 말이 비록 큰 새악시를 데리고 다니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다닌다 하며, 또한 이곳에 남녀학당도 실시하였으며 교중 연보도 차차 성심으로 드리며 전도도 바지런히 하는 이도 있고, 장마다 위인 강화 중에 책도 팔며 전도하는 이도 있어 여러 촌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전주교회 몇 고을에 주일이면 예배하는 곳이 있더라" (그리스도 신문 1902년 2월 6일 일자)

하위렴은 예배 후 학습과 세례 문답을 위한 교리공부반을 열어 단계별로 가르쳤으며, 데이비스는 부인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가르쳤다. 데이비스가 가르친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각주 3)이 당시 주일학교의 주제가가 될 정도로 널리 불렸으며 초기 교회 당시 가장 많이 애창된 찬송이었다.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면서 이듬해인 1901년에는 교인 수도 배가 되기 시작하더니 1903년에는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문밖교회 뿐 아니라 이미 테이트에 의해 세워진 전주 주변 지역교회를 순회하며 성례를 베풀었을 뿐 아니라 새로 생긴 태인의 계양과 금구의 구봉리 공동체도 돌아보았다. 1901년 8월에는 정읍의 매계교회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5명에게 세례를, 19명에게 학습를 베풀기도 했다. 하위렴은 정읍지방 최초의 교회인 매계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보고했다.

"예배 출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집 한 채를 사서 회집 장소로 개조했고 그들은 20리 떨어진 곳에 가 예배를 드린다."(W. B. Harrison, "Encouragements at Chunju", The Missionary, Oct, 1901, pp. 465)



찬셩시(8장) 1898, 찬숑가(190장) 1908.

테이트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까지 하위렴은 전주 북부지역(고산, 여산, 함열, 임피)과 동부지역(진안, 용담, 무주, 금산, 진산)을 혼자서 맡고 있다가 1903년 마로덕Luther O. McCutchen 선교사가 새롭게 부임하자 전주 동부지역을 그에게 인계하고 하위렴은 북부지역에만 몰두했다.(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903, pp. 29)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마음의 창조자, 마음의 치료자

청교도와 21세기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우울증'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리처드 백스터, 제임스 패커,
마이클 런디 | 최원일,
김안식 역 | 세움북스 | 292쪽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성경적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본서는 우울증 환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물론 본서가 우울증과
불안증에 관한 완벽한
지식과 현대적 치료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본서를 통해
우울증에 관한 성경적이고
영적인 통찰을 얻고서,
천상의 위로와 소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한 번쯤은 우울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불안감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헤아림이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은혜 아래 기뻐 뛰놀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우울과 불안은 거의 범죄라고 여겨지기 쉽다. 정신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도덕적으로 무능하며 신앙이 얕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경험한 우울감과 불안한 감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들이 특이해서 겪는 일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누구나 여러 가지 경로로 깊은 우울감과 불안증세에 빠질 수 있으니 말이다.

추천사를 남긴 싱클레어 퍼거슨, 마크 존스, 그리고 공동 저자이자 서문을 작성한 제임스 패커가 정확히 짚어낸 것처럼,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의 특장점은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가 당시 의사처럼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고통을 감하는 실질적인 치료책으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과, 그 방식이 매우 복음적이면서도 실제적이라는 점이다.

공동 저자들인 청교도 신학자 제임스 패커와 의학박사인 마이클 런디가 전공 분야 관점에서 이 책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날 독자에게 오롯이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만 보는 우울증을 어떻게 신학적, 의학적으로 균형 잡히게 다룰 수 있는지 돕는다는 점이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고, 1부에서는 리처드 백스터에 관한 소개로 제임스 패커가 그 신학과 실질적 적용을, 런디가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백스터를 평가한다. 2부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리처드 백스터 목사의 권고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데, 먼저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하고, 그 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백스터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굉장히 깊이 파헤쳐 이를 겪는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증상들(육체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한다. 무조건 죄 문제라고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죄가 섞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

무조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무턱대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도록 돕는다(때론 짧게 묵상하고 기도할 것을 조언하기도 한다.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는 이들은 오랜 시간 고립된 생각 속에 갇히면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약물이나 의사의 도움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권하지는 않지만,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특별히 같은 문제를 겪는 이들이 추천하는) 의사와 목사를 만나라고 권면한다. 적절한 약물치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라고 한다.

혼자 있기보다 여럿이 있는 곳에 갈 것을 권하고,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한 가지 감정과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백스터는 마치 정신과 의사처럼 또는 성경적 상담가처럼 많은 문제를 다루어본 경험 있는 선배로서,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는 그리스도인과 그들을 돕는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오늘날 우울증과 불안증은 대표적 정신질환이다. 우리는 의학과 의술이 갈수록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사실 그런 측면도 분명 있다), 과거 청교도 시대 의사도 아닌 목사가 다룬 정신질환 치료책이 오늘날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타당한지 의심할 수도 있다.


ⓒ픽사베이

하지만 의학박사이자 공동 저자인 런디의 말처럼, 환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세는 금물이다. 오히려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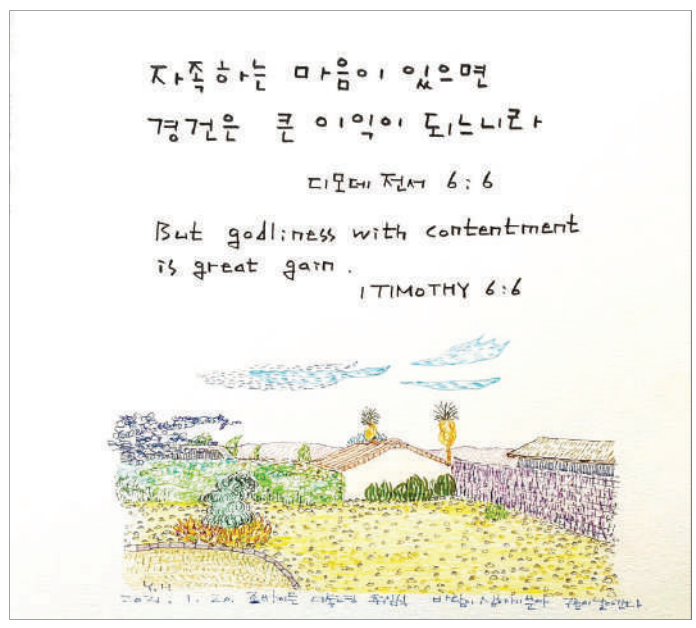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 오묘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존재이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질병은 의학이 다루는 육체뿐 아니라 신학이 다루는 영혼까지 영향을 고루 미친다. 그러므로 백스터와 같이 경험이 많고 영성이 뛰어나며 말씀을 예리하게 다룰 줄 아는 의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목회 현장에서 이 책이 다룬 문제를 크고 작게 겪는 이들을 만나고,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를 상담해야 할 때도 있다.

물론 우리의 심신을 고치시는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손에 들린 신실한 치료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책이 그런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SBS 드라마 〈열혈사제〉 (1)

〈열혈사제 2〉: 사회가 보는 종교인들 이미지, 위선과 우스움 사이

종교인, 코믹 캐릭터가 대부분
긴장 푸는 재료 소비 안타까워
참된 신앙인, 진지한 태도 유지



전직 국정원 요원이 가톨릭 사제가 되어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는 활극을 담은 드라마, 〈열혈사제〉 시리즈.

천주교 신부들이 주인공인 SBS 드라마 〈열혈사제2〉가 시작됐습니다. 김남길(김해일) 신부와 박경선(이하늬)를 비롯해 김성균(구대영), 백지원(김인경) 등 〈열혈사제〉 1편 출연진들 외에 성준(김홍식), 서현우(남두헌), 김형서(구자영), 김원해(고독성), 고규필(오요한), 안창환(쏭삭), 한성규(전성우), 양현민(박대장) 등이 출연합니다. -편집자 주

드라마 속 신앙인: 부패한 위선자 혹은 선량한 '허당'

지난 2019년 방영된 드라마 〈열혈사제〉 두 번째 시즌, 〈열혈사제 II〉가 11월 8일 방영을 시작했다. 이 드라마는 국정원 대테러 요원직을 그만두고 가톨릭 사제로 전직한 김해일 신부(김남길 분)의 범죄수사 활극을 중심 서사로 삼는다. 근래 유행하는 '힘을 숨긴'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첫 시즌 줄거리는 부패한 검사, 구청장, 그리고 지역 조직폭력배가 결탁한 재개발 범죄 카르텔과의 싸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해일이 은인으로 여기는 선량한 성직자 이영준 사제(정동환 분)가 이 범죄 카르텔에게 협박을 받고 살해된다. 이에 김해일과 그를 돕는 검사, 경찰, 성당 식구들과 동료들이 정의구현과 복수에 나선다.

시즌2의 줄거리는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이다. 역시 부패한 정치인, 검사, 조직폭력배가 얽힌 카르텔이 등장한다. 주인공이 담당한 성당의 한 청소년 신자가 이 카르텔이 유통한 마약의 피해자가 되면서, 본격적인 서사가 진행된다. 최근 일반인, 특히 청소년층에 빠르게 퍼져나가는 마약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서사 설정으로 보인다. 이 드라마는 2019년 최종화 시청률 22%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즌 첫 화가 방영되자 시청률 11%를 기록하며 국내 드라마 인기순위 2위를 차지했다. 첫 번째 시즌과 마찬가지로 짜임새 있는 서사 설정, 호쾌한 액션, 뚜렷한 캐릭터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5년 전의 인기를 다시 한 번 누릴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열혈사제〉 시리즈에서 눈길을 끄는 요인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종교 공동체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캐릭터와 대사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종교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선량하면서 유머 넘치는 이들과 위선적이면서 부패한 자들. 위선적이고 부패한 사이비 종교인들의 모습이야 이미 대중매체에 워낙 많이 등장한 터라 그리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런데 선량하면서 유머 넘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최근 국내 드라마 업계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듯해 눈길을 끈다.

과거 영화 〈할렐루야〉(1997)나 〈달마야 놀자〉(2001) 같은 작품에서 우습기 그지없는 성직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이들은 실상 해당 종교 교의에 깊게 감화된 자들이 아니라 사기를 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종교 공동체로 숨어들어온 이들이다. 즉 작중 설정상 '독실한' 성직자나 신자가 아닌 것이다. 반면 〈열혈사제〉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해일 신부와 그와 함께하는 성당 식구들은 모두 가톨릭 공동체 관점으로 볼 때 가톨릭 교의에 깊게 감화된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선량하지만 어딘가 한 구석이 모자란, 흔히 유행하는 말로 '허당끼'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

대중문화 속 신앙인: '코메이디아'의 재료로 소비되는 신앙인의 이미지

선량한 종교인이나 신앙인들의 우스운 모습이 대중문화 속에서 점차 하나의 전형(stereotype)으로 굳어지는 듯하다. 이 작품 직전 방영된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도 이렇게 희화화된 신앙인과 교회의 모습이 묘사된다. 여기 등장하는 장명숙 권사(김재화 분)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늘 선행과 전도에 힘쓰는 모범적인 신자다.


〈열혈사제〉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해일 신부와 그와 함께하는 성당 식구들은 모두 가톨릭 공동체의 관점으로 볼 때 가톨릭 교의에 깊게 감화된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선량하지만 어딘가 한 구석이 모자란, 흔히 유행하는 말로 '허당끼'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작중 장명숙 권사가 맡는 역할은 전형적인 코믹 릴리프 캐릭터(comic relief character)다. 그녀는 극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려 할 때마다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대사를 통해 시청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캐릭터는 〈열혈사제〉나 〈지옥에서 온 판사〉와 같은 킬링타임용 드라마의 흥행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갖는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각각의 교의나 사회윤리 관점으로 볼 때 선량하고 정의롭게 묘사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믿음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다만 작품의 인기 유지를 위해 이런 선량하고 신실한 성직자나 신앙인들의 이미지가 코믹한 분위기 연출을 위한 재료로 쉽게 소비되어 버리는 행태는 안타깝게 여겨진다. 신앙인 캐릭터의 이 우스꽝스러움과 어설픔이 마치 신앙을 가진 이들이 당연하게 갖추어야 할 모습이나 덕목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의 진지한 믿음의 삶을 은폐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기독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는 원래 초월성 혹은 무한성을 자각하도록 삶을 이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좌우할 수 없는 경이롭고 두려운 것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특정 교의에 깊게 감화된 자들은 초월성과 무한성의 현현 앞에서 매우 진지한 심정을 갖게 된다. 특히 이 초월성과 무한성이 인간의 여러 결핍과 유한성을 절감하게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 그리고 타인에게는 윤리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내세의 보상을 바라거나 공동체 내부에서의 인정을 받으려는 바람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바람에 더해 '무한의 현현(현상학자 레비나스의 표현을 빌리자면)'을 체험한 이들이 느끼는 숭고함과 경이로움이 신앙인들의 선행과 윤리적 헌신을 유도한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교단, 교파, 종파에 상관없이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매우 진지하고 열심 있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쓴다. 이런 모습은 유머를 통해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즐거움을 통해 삶의 위안을 얻는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대중문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이런 정서적 지배력의 핵심에는 '코모이디아(komoidia)'와 '에로스(eros)'가 자리잡고 있다.

'코미디'의 그리스어 어원인 코모이디아는 흥청거리는 술잔치를 뜻하는 '코모스(komos)'와 흥겨운 노래를 뜻하는 '오이데(oide)'가 합쳐진 말이다. 코모이디아 없이는 대중문화가 지탱되지 않는다. 대중문화 콘텐츠 가운데 진지함을 담은 작품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진지함이 대중문화 전체 분위기를 대표할 수는 없다. 결국 대중문화는 술과 노래처럼 사람을 취하고 흥겹게 만드는 힘을 가질 때 대중에게 사랑받게 된다.

그러니 오늘날 대중문화가 신앙의 진지함을 잘 다루려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신, 타인,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절박한 자각과 진지함은 신앙의 정서적 필수요소다.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통큰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부목사님(Full time) 청빙!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라는 사명으로 1993년 창립되어서 31주년을 맞이하는 빌립보교회(초교파) 에서 박동훈 담임목사님과 함께 목양사역을 섬겨주실 부 교역자님을 청빙합니다.

1. 지원자격
1)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목회 소명과 비전이 분명하신 분
2)한국 또는 미국에서 정규신학대 학위 (M.Div.) 를 받으신분으로 Full time 부목사 경험이 있으신 분
3)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역하실수 있으신 분

2. 주사역 한어 장년목양사역

3. 제출서류
1)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1부
2)자기소개 및 신앙간증문 (소명, 목회비전, 사역경력, 가족소개 등)
3)목사안수 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4)최근 설교 영상 2편 (파일 또는 링크)
5)추천서 2부(각 추천인 연락처 기재)

4. 접수 및 방법
1)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문의 및 서류제출 (davidchoidh@gmail.com) 최대현
3)서류마감 (2024년 12월 08일)

5. 참 조 빌립보교회 홈페이지(http://www.churchofphilippi.org)
매릴랜드 빌립보교회

한기총 "WEA 최고위층에 제기된 이단성 의혹 해명하라"

성명 통해 국제이사회 존 랭로이 종신이사와 굿윌 샤나 의장에 촉구

존 랭로이 아들 마크 랭로이 "아버지 컬트(이단)" 폭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WEA 최고위층에 있어선 안 돼"
굿윌 사나 의장, 국내외적인 신사도운동 의혹 제기돼
"두 사람 의혹 진위 가려 사실일 경우 즉각 물러나야"
"의혹 · 문제들 모두 해소된 후 총회 개최해도 안 늦어"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가 출범을 예고하면서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기총)가 13일 성명을 통해 "WEA 최고위층에 제기된 이단성 의혹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WEA서울총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WEA 국제이사회의 존 랭로이(John E. Langlois) 종신이사와 굿윌 샤나(Goodwill Shana) 의장은 자신들에 대해 제기된 이단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했다. 이어 "1969년부터 WEA에서 근무한 존 랭로이 이사는 약 40년간 소위 최고 지도자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는 그의 아들 마크 랭로이 씨의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크 랭로이 씨는 그의 부친인 존 랭로이 이사가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평생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Narcissist)'이고 이런 행태는 컬트(이단)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한기총은 "그는 '어린 시절 가족들이 운영했던 교회에 다녔다'며 '지금 와서 보니 그곳은 완벽한 사이비 집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가족들과 다녔던 그 교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크 랭로이 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WEA를 이끄는 최고위층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굿윌 샤나 의장에 대해선 "WEA 국제이사회 의장으로 공석인 총무(사무총장)를 겸하며 전권을 가지고 있다"며 그에 대해 "국내외적인 신사도운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한기총에 따르면 신사도운동(NAR, New Apostolic Reformation) 비판사이트(https://narconnections.com/goodwill-shana-2/)에서 샤나 의장이 신사도운동에 소속되어 있다고 소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만든 'WOLIM(Word of Life International Ministries)'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가 집회를 인도하는 모습이 담긴 많은 영상들 속에는 샤나 의장을 '사도'(Apostle)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기총은 "이에 대해 국내외의 이단전문가들은 '사도'라는 호칭은 신사도운동 집단에서 주요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샤나 의장 집회에서의 가르침이 이단적일 뿐만 아니라 신사도운동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최고위층 두 사람의 심각한 의혹에 대해서 시급히 그 진위를 가려야 하고, 만일 사실이라면 그들은 직위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이런 의혹이 가득한 WEA의 일부 고위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WEA 총회 관련 논의 및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WEA 최고위 지도자들의 신학적 문제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에 더해 가정파괴와 학대, 그리고 신사도운동 의혹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WEA 전 총무 토마스 쉬르마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가정에 관한 가톨릭 시노드(세계 주교회의)의 유일한 복음주의자 회원이며, 교황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했고, 2021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정교회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강연한 바 있다"고 했다.

한기총은 "이러한 의혹과 문제들이 모두 해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WEA 총회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한국교회의 분열에 대한 책임은 총회 개최를 강행하는 이들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한기총 성명 전문.



한기총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WEA 최고위층에 제기된 이단성 의혹 해명하라

국제이사회 존 랭로이 종신이사와 굿윌 샤나 의장에 대해

WEA서울총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WEA 국제이사회의 존 랭로이(John E. Langlois) 종신이사와 굿윌 샤나(Goodwill Shana) 의장은 자신들에 대해 제기된 이단성 의혹을 해명하라.

1969년부터 WEA에서 근무한 존 랭로이 이사는 약 40년간 소위 최고 지도자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는 그의 아들 마크 랭로이 씨의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크 랭로이 씨는 그의 부친인 존 랭로이 이사가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평생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Narcissist)'이고 이런 행태는 컬트(이단)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들이 운영했던 교회에 다녔다"며 "지금 와서 보니 그곳은 완벽한 사이비 집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가족들과 다녔던 그 교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마크 랭로이 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WEA를 이끄는 최고위층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또한, WEA 국제이사회 의장이며 공석인 총무(사무총장)를 겸하며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굿윌 샤나 의장의 국내외적인 신사도운동 의혹 제기에 관한 것이다.

신사도운동(NAR, New Apostolic Reformation) 비판사이트(https://narconnections.com/goodwill-shana-2/)에서 샤나 의장이 신사도운동에 소속되어 있다고 소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만든 'WOLIM(Word of Life International Ministries)'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가 집회를 인도하는 모습이 담긴 많은 영상들 속에는 샤나 의장을 '사도'(Apostle)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의 이단전문가들은 '사도'라는 호칭은 신사도운동 집단에서 주요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샤나 의장 집회에서의 가르침이 이단적일 뿐만 아니라 신사도운동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최고위층 두 사람의 심각한 의혹에 대해서 시급히 그 진위를 가려야 하고, 만일 사실이라면 그들은 직위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이런 의혹이 가득한 WEA의 일부 고위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WEA 총회 관련 논의 및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WEA 최고위 지도자들의 신학적 문제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에 더해 가정파괴와 학대, 그리고 신사도운동 의혹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WEA 전 총무 토마스 쉬르마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가정에 관한 가톨릭 시노드(세계 주교회의)의 유일한 복음주의자 회원이며, 교황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했고, 2021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정교회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강연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과 문제들이 모두 해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WEA 총회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한국교회의 분열에 대한 책임은 총회 개최를 강행하는 이들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김진영 기자

1700년대 설립된 美 흑인교회, 사상 첫 女 담임 목사 임명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역사적인 아프리카감리교성공회(AME) 교회에 18세기 후반 교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여성 담임 목사를 임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리차드 앨런 목사가 1790년대에 설립한 필라델피아 베델 AME(Mother Bethel AME) 교회는 최근 캐럴린 C. 카바네스(Carolyn C. Cavaness) 목사가 새로운 담임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카바네스는 9일 열린 AME 제1성공회지구계획회의에서 사무엘 그린(Samuel Green) 주교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전에는 펜실베이니아주 아드모어에 있는 베델 AME 교회에서 목사로 봉사했다. 카바네스는 뉴욕시 컬럼비아대학교의 바너드 칼리지를 도시학 전공으로 졸업하고, 뉴욕시 유니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목회 업무 외에도 종교 간 자선 활동에 참여했으며,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에서 재무 부국장을 맡기도 했다.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혜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혜민병원

혜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검진내용

- 뇌 MRI / 수면 대장내시경 — 중 선택
- 수면 위내시경
- CT 촬영 (뇌, 폐 선택)
- 종양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갑상선 검사. T3, T4, TSH
  (갑상선 항진, 저하)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간기능,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등
  혈액검사 및 기본검사
- 산부인과 질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진비용

~~$9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불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진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문의전화 T.(213)341-5123